

주제문: K리그는 K리그 선수들과 팬들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 목차

1. 서론
2. 본론1. K리그 연맹의 잘못된 자세
  - 1) 일관성 없는 올스타전 경기방식
  - 2) K리그를 등한시하는 행정처리
3. 본론2. 선수들을 배려하지 않는 올스타전
  - 1) 올스타전 일정에 대한 문제
4. 결론
- \* 참고문헌

#### 1. 서론

최근 토트넘 홋스퍼에서 토트넘 홋스퍼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 선수가 영국 잉글랜드의 최상위 프로 축구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 (Premier League)에서 공동 득점왕을 수상하였다. 이는 아시아 최초이자 한국 최초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기록이다. 또한 이번 손흥민은 PK 골 없이 득점왕을 달성하였기에 더욱 값어치가 높다. 이런 대기록을 세운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홋스퍼팀은 토트넘 홋스퍼 팀은 이번 7월 13일 쿠팡플레이가 피치 인터내셔널과 함께 영국 명문 팀 ‘토트넘 홋스퍼 FC’를 초청해 팀 K리그와의 친선경기를 주최하고 국내에서 디지털 단독 생중계에 나선다.<sup>1)</sup>

#### 2. K리그 연맹의 잘못된 자세

K리그 연맹은 계속하여 K리그 팬들과 선수들을 최우선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올스타전을 진행하고 있다. 처음부터 K리그 올스타전이 해외 선수/클럽들과 경기를 진행한 것은 아니었다. 2008년 이전까지는 32명의 선수가 32명의 선수들이 중부(안양, 성남, 부천, 수원, 대전)팀과 남부(전북, 포항, 울산, 전남, 부산) 팀으로 나뉘어 경기를 진행하였다. 경기뿐만 아니라 골을 넣고 카드를 받을 정도로 세레머니를 하거나 익살스러운 플레이를 하고 심지어 심판들도 그 대열에 동참하는 등 친숙하고 재밌는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하프타임에는 전 구단의 선수+스태프+팬+심판이 참여하는 계주도 펼쳐지는 등 재미있는 이벤트가 많았다.

하지만 2008년부터 J리그 올스타팀, 해외 축구팀들을 섭외하여 K리그 올스타전을 진행하였다. K리그 올스타전에 국가대항전 요소를 집어넣으면서 K리그 선수, 팬, 스태프, 코치진들이 다 함께 어울려 노는 즐거운 잔치였던 올스타전이 꼭 이겨야만 하는 경기로 변질하면서 비난을 듣거나, 더 나아가 패배 시에는 경기력 논란까지 생기며 과거 즐거운 분위기가 점차 사라졌다.

1) 이준희, “손흥민과 토트넘, 7월 한국 투어 때 K리그 올스타와 맞대결”, 한겨레, 2022/04/14

물론 유명 해외클럽들의 방한 경기로 기존 K리그 팬들뿐만 아니라 국내 축구를 즐기는 팬들에게 어느 정도 관심이 생기지만 점점 K리그 선수가 아닌 해외파 국가대표 선수들을 어울리지 않게 끼워 넣거나 K리그 올스타전이지만 베트남으로 원정을 가 경기를 하는 등 K리그 올스타전만의 특색은 잃어버리고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으로 변질하여 K리그의 축제여야 할 올스타전의 의미가 점차 퇴색되고 있다.

K리그 연맹은 K리그를 위해 일하는 단체이다. 하지만 2010 바르셀로나의 방한부터 2017 하노이에서 개최된 베트남 U-22 팀과의 경기에서 전형 K리그를 위한 모습이 아닌 오직 돈과 흥행만을 위한 모습을 보여줬다. 본래 2010 올스타전에서는 2008, 2009 올스타전에 이어 J리그 선수들과의 경기가 예정되어있었으나, FC 바르셀로나의 방한 시기에 맞춰 K리그 올스타팀 간의 친선경기로 대체하였다. 2010 올스타전이 있던 8월 4일은 본래 FC 서울과 제주 유나이티드 경기가 있었지만, 바르셀로나 측에서 일방적인 방한 날짜 통보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사용하기 위해 프로연맹이 K리그 올스타전 카드를 꺼내 들며 리그 일정을 무산시켰다.<sup>2)</sup> 이러한 태도는 프로연맹이 가지면 안 되는 자세이기도 하지만, ACL(Asia Champions League)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K리그가 유럽 클럽팀과의 경기를 위해 올스타들을 출전시키는 행동이 문제였다. 또한 이러한 친선경기에서는 승패를 떠나 K리그는 오직 손해만 보는 점이 문제였다.

2017 올스타전은 연맹의 잘못된 행정으로 베트남 U22 팀에게 0:1로 패배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리그 일정이 많이 몰려있는 무더운 여름에 주중 경기를 포함한 버거운 일정을 치르고 베트남까지 날아가 올스타전을 마쳐야 했다. 또한 원정 경기이기에 소수의 팬만이 직관할 수 있었었다. 그렇기에 K리그 선수들은 전력을 다해 뛸 이유가 없었지만, 베트남 U22 팀은 서남아시아 대회를 앞둔 상태였기에 최선을 다해 이겨서 팀 분위기와 역량을 끌어올릴 기회였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제대로 된 경기가 진행되지 않았다. 물론 제대로 된 홍보와 구성을 준비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본래 올스타선수들은 감독과 팬들이 선정하지만 2017 올스타전에서는 오직 감독들만이 투표하였으며, 국가대항전이라는 이유로 K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던 외국인 용병들은 제외됐었다. <sup>3)</sup>

### 3. 선수들을 배려하지 않는 올스타전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번 올스타전은 7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경기가 진행된다고 밝힌 7월에만 K리그 공식 경기는 무려 7경기이다. 7월 2일날 19라운드부터 25라운드까지 펼쳐진다. 이는 굉장히 버거운 일정이며 그 이유는 이번 ‘2022 국제축구연맹 카타르 월드컵’ 때문이다. 또한 K리그 4팀(울산, 전북, 대구, 전남)이 참가하는 ACL 때문에 4월21일부터 5월 7일까지 리그 경기를 진행할 수 없다. 이러한 와중에 초청 경기가 진행되며 올스타들은 각 팀들의 에이스, 주축 선수들이기에 선수들의 부상이 우려된다. 연맹이 하는 일은 선수들이 부상당하지 않게 일정을 조율하는 것인거에 반해 지금은 되려 K리그 선수들을 희생시켜 금전적 이익만 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sup>4)</sup>

### 4. 결론

---

2) 서형욱, “5억원에 내다 판 K리그의 자존심”, 네이버스포츠, 2010/08/05

3) 양승남, “K리그 올스타전을 왜 베트남에서?”, 경향신문, 2017/07/27

4) 최병진, “또 K리그 선수들이 희생하는 올스타전”, STN스포츠, 2022.04.15

최근 쿠팡플레이 시리즈의 2차 매치로 토트넘 핫스퍼 대 세비야 FC의 경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렇기에 1차에 예정되어있는 K리그 올스타전을 취소하고 다른 구단과의 경기를 진행시켜 K리그 선수들을 혹사시키지 말아야한다. K리그 연맹은 더 이상 금전적인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지 말고 K리그 선수들과 팬들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 참고문헌

이준희, “손흥민과 토트넘, 7월 한국 투어 때 K리그 올스타와 맞대결”, 한겨레, 2022/04/14  
서형욱, “5억원에 내다 판 K리그의 자존심”, 네이버스포츠, 2010/08/05  
양승남, “K리그 올스타전을 왜 베트남에서?”, 경향신문, 2017/07/27  
최병진, “또 K리그 선수들이 희생하는 올스타전”, STN스포츠, 2022.04.15